

건설공사 기술자들의 여가활동사례에 관한 연구

박흥태¹, 박원태^{1*}

A Study on an Instance of a Leisure Activities about the Construction Engineers

Hong-Tae Park¹ and Won-Tae Park^{1*}

요 약 건설공사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의 필요성, 여가활동 계획, 여가활동의 선호도, 여가활동의 시간,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들의 여가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소득의 증대와 근로시간의 단축이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여가비용과 여가시간의 증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보고 여가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grasped an instance of a leisure activities about a construction engineers through the questions as to a need, a plan, a preference, a time and a main cause of a leisure activities. An increase of an income and a reduction of a work time have investigated an influence on a leisure cost and time. This study suggested a good method for an improvement of a leisure activities.

Key Works : Leisure Activities, Construction Engineers, Questions, Increase of an income, Reduction of a work time

1. 서 론

여가는 구체적으로 '생리적 필수 시간과 근로시간을 제외한 여가시간에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어떤 활동에서 기쁨, 만족감, 나아가서 자아실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8]. 여가활동은 현대인들에게 대중화되고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서 일이 여가에 미치는 영향보다 여가가 일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은 직장을 고를 때에도 여가를 얼마나 쓸 수 있느냐를 고려하기도 한다[9]. 또한, 소득의 증가는 여가활동을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쳐 여가소비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다. 그러나 현대인에게 소득의 증가와 근로시간의 단축이 여가활동을 할 때 여가비용과 여가시간에 만족할만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연구의 대상이라 생각한다. 이론적으로는 소득의 증가와 근로시간의 단축이 여가활동시 여가비용과 여가시간의 증대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하였다[8]. 이에 본 연구는 건설공사 기술자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들의 여가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소

득의 증대와 근로시간의 단축이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여가비용과 여가시간의 증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연구해 보고 여가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조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과는 달리 주로 현장에서 종사하게 되는 건설의 특수성이 있으며, 조사 대상자중 출퇴근 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기술자가 67%, 1시간이내 13%, 2시간 이상 20% 소요되는 도시지역(서울 및 경기지역에 한정)의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건설공사 기술자들의 여가활동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건설산업교육원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가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를 분석하고, 여가활동에 기여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본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논문[6], [1], [7]을 참고로 하여, 2007년 3월 3일부터 3월 15일에 이루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을 조사의 대상으로 하지 못해 조사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를 위한

¹공주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신저자 : 박원태(pwtac@kongju.ac.kr)

표본추출 방법은 본 연구자의 임의성이 개입되었고,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여가활동의 필요성, 여가활동을 위한 계획, 여가활동의 선호도, 여가활동의 시간,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자료분석방법은 빈도(명)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조사결과와 분석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정도, 생활수준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표 1]과 같이 성별 분포도는 남자가 54명으로 100%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39세가 전체의 37.0%로 가장 많았고, 40~49세가 35.2%로 다음을 차지하였고, 50~59세가 14.8%, 20~29세가 13.0%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서 보듯이 30~49세가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대와 50대가 매우 저조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60세 이상은 한 명도 없었다.

교육수준에서는 '대학교 졸업'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학 졸업'이 20.4%, '대학원 졸업 이상'이 9.2%, '고등학교 졸업'이 3.7%로 응답자의 학력수준이 대학교 졸업 이상이 약 80%에 육박하는 높은 학력수준을 나타냈다.

다음은 생활수준에서 '보통이다'가 87.1%, '어려운 편이다'가 11.1%, '잘사는 편이다'가 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볼 때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별 어려움이 없이 살고 있는 중류층이 많아, 여가활동에 대한 여러 분석에 큰 편차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일반적 사항

응답자		빈도	%	계
성별	남	54	100%	54(100%)
	여	0	0%	0(0%)
연령	20~29세	7	13.0%	54(100%)
	30~39세	20	37.0%	
	40~49세	19	35.2%	
	50~59세	8	14.8%	
	60세 이상	0	0%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2	3.7%	54(100%)
	전문대학 졸업	11	20.4%	
	대학교 졸업	36	66.7%	
	대학원 졸업이상	5	9.2%	
생활수준	잘사는 편이다	1	1.8%	54(100%)
	보통이다	47	87.1%	
	어려운 편이다	6	11.1%	

3.2 여가활동의 필요성

3.2.1 여가활동의 필요성

[표 2]는 여가활동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표 2]에 의하여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가활동의 필요성에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절대 필요하다'에 77.8%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소 필요하다'가 22.2%, '필요치 않다'가 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아도 '절대 필요하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20대가 85.7%, 30대가 75.0%, 40대는 89.5%, 50대는 50.0%로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다소 필요하다'에 20대 14.3%, 30대 25.0%, 40대 10.5%, 50대 50.0%, '필요치 않다'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응답하지 않았다. 이처럼 '절대 필요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휴식과 여가생활을 함께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 본 연구자료를 김지태[1]의 자료와 비교하여 보면, 여가활동의 필요성 부문에서 '절대 필요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동일하였다.

3.2.2 여가에 대한 가치관

[표 2]의 두 번째 칸에 있는 여가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에 29.0%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기분전환을 하는 것'에 22.4%이고, 그 외 '나들이나 여행을 하는 것'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17.7%로 같은 비율을 보이며, '창조적인 활동이나 재생산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에 13.2% 순으로 나타났다. 김법동[7]의 연구에서는 '휴식을 취하는 것'에 23%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그 다음이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에 22%, '기분전환을 하는 것' 21% 순으로 나타난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순서에 있어서는 뒤바뀌는 양상을 보였다. 현대는 김법동의 1980년대보다는 핵가족화가 사회적으로 더욱 더 만연되어 이동하기 빠르고 가족수가 적어 여가비용도 덜 들고, 저마다 자가용의 소유로 인해 가족단위로 여가를 즐기는 경향이 더욱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3.2.3 여가와 일에 대한 생각

[표 2]의 세 번째 칸에 있는 여가와 일에 대한 생각을 전 연령층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일도 중요하고 여가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에 85.2%의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일이 더 중요하다'가 11.1%이고, '여가가 더 중요하다'가 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봤을 때도 20·30·40·50대 모두 '일도 중요, 여가도

표 2. 여가활동의 필요성

구 분		나 이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계
여가 활동의 필요성	절대 필요하다	6(85.7%)	15(75.0%)	17(89.5%)	4(50.0%)	42(77.8%)
	다소 필요하다	1(14.3%)	5(25.0%)	2(10.5%)	4(50.0%)	12(22.2%)
	필요치 않다	0(0%)	0(0%)	0(0%)	0(0%)	0(0%)
계		7(100%)	20(100%)	19(100%)	8(100%)	54(100%)
여가에 대한 가치관	나들이나 여행을 하는 것	3(18.75%)	10(23.2%)	4(11.4%)	2(15.5%)	19(17.7%)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	3(18.75%)	11(25.6%)	16(45.7%)	1(7.7%)	31(29.0%)
	기분전환을 하는 것	3(18.75%)	10(23.3%)	7(20.0%)	4(30.8%)	24(22.4%)
	휴식을 취하는 것	3(18.75%)	8(18.6%)	5(14.3%)	3(23.0%)	19(17.7%)
	창조적인 활동이나 재생산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	4(25.0%)	4(9.3%)	3(8.6%)	3(23.0%)	14(13.2%)
계		16(100%)	43(100%)	35(100%)	13(100%)	107(100%)
여가와 일에 대한 생각	일이 더 중요하다	0(0%)	1(5.0%)	2(10.5%)	3(37.5%)	6(11.1%)
	일도 중요하고 여가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7(100%)	17(85.0%)	17(89.5%)	5(62.5%)	46(85.2%)
	여가가 더 중요하다	0(0%)	2(10.0%)	0(0%)	0(0%)	2(3.7%)
	계	7(100%)	20(100%)	19(100%)	8(100%)	54(100%)

중요하다'에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을 하였다. 이 결과는 현대 직장인들에게 여가란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현대는 소득의 증대와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더욱 더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여가활동이 이제는 '쉬는 시간'으로서의 개념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즉, 인간답게 살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하는 여가 활동"이라고 사료된다.

3.3 여가활동을 위한 계획

[표 3]에서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여가활동에 대한 계획을 '대체로 세우는 편이다'가 75.9%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전혀 세우지 않는다'가 18.5%, '항상 계획을 세운다'가 5.6%로 나타났다. '대체로 세우는 편이다'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8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대가 85.0%로 많았다. 40대는 73.7%, 50대는 50.0%로 나타났다.

김법동[7]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세우는 편이다'가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본 결과는 김법동의 연구

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1980년대보다도 현대 직장인들이 더 많이 여가계획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올바른 여가활동의 선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자가용 보유자가 늘어나고, 여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계획을 세워 여가를 적극적으로 즐기려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3.4 여가활동의 선호

3.4.1 여가활동의 실시유무

노용구[8]는 향후 여가수요 변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시간이라 하였다. 그는 여가활동 영위에 있어 금전보다도 시간이 더 큰 장애요소라 하였다. [표 4]에서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여가활동 실시유무는 '시간 날 때마다 한다'에 66.7%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다음은 '주기적으로 한다' 22.2%, '전혀 하지 않는다' 9.2%, '매일 한다' 1.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아도 '시간 날 때마다 한다'가 가장 많

표 3. 여가활동에 대한 계획

구 분		나 이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계
사전 계획 유무	항상 계획을 세운다	0(0%)	0(0%)	2(10.5%)	1(12.5%)	3(5.6%)
	대체로 세우는 편이다	6(85.7%)	17(85.0%)	14(73.7%)	4(50.0%)	41(75.9%)
	전혀 세우지 않는다	1(14.3%)	3(15.0%)	3(15.8%)	3(37.5%)	10(18.5%)
계		7(100%)	20(100%)	19(100%)	8(100%)	54(100%)

은 응답을 하였으며, '주기적으로 한다', '전혀 하지 않는다', '매일 한다'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법동[7]의 연구에서 '시간 날 때마다 한다', '주기적으로 한다', '매일 한다', '전혀 하지 않는다'와는 달리 백분율은 미비하나 '전혀 하지 않는다', '매일 한다'의 항목에서 순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건설공사 기술자들이 타 업종과는 달리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업무의 특성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순위의 변화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도시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들의 경우는 타종사업과 대동소이한 환경이라 사료된다.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라 사료된다.

표 4. 여가 활동의 실시 유무

구분	나이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계
매일 한다	0(0%)	0(0%)	0(0%)	1(12.5%)	1(1.9%)
주기적으로 한다	0(0%)	5(25.0%)	5(26.3%)	2(25.0%)	12(22.2%)
시간 날 때마다 한다	7(100%)	13(65.0%)	13(68.4%)	3(37.5%)	36(66.7%)
전혀 하지 않는다	0(0%)	2(10.0%)	1(5.3%)	2(25.0%)	5(9.2%)
계	7(100%)	20(100%)	19(100%)	8(100%)	54(100%)

3.4.2 평소 즐겨하는 여가활동

[표 5]에서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평소 즐겨하는 여가활동은 '여행'이 13.2%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다음은 '연극·영화관람'이 10.7%, '라디오·TV 시청'이 9.8%, '등산'이 8.4%, '조깅'이 6.5%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평소 즐겨하는 여가활동과 미래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

항목	여가활동		항목	여가활동	
	평소	미래		평소	미래
봉사활동	0(0%)	7(6.7%)	사진촬영	3(1.4%)	4(3.8%)
연극영화관람	23(10.7%)	1(1.0%)	원예	2(0.9%)	1(1.0%)
수집	1(10.5%)	2(1.9%)	윈드서핑	0(0%)	5(4.8%)
라디오, TV 시청	21(9.8%)	0(0%)	스킨스쿠버	1(0.5%)	10(9.5%)
집안일 돕기	11(5.1%)	1(1.0%)	수영	2(0.9%)	4(3.8%)
등산	18(8.4%)	6(5.7%)	테니스	4(1.9%)	0(0%)
낚시, 사냥	8(3.7%)	4(3.8%)	볼링	7(3.3%)	1(1.0%)
미술, 음악감상	6(2.8%)	3(2.9%)	축구	1(0.5%)	2(1.9%)
운동경기관람	7(3.3%)	3(2.9%)	골프	12(5.6%)	18(17.1%)
서예	0(0%)	1(1.0%)	배드민턴	4(1.9%)	0(0%)
바둑, 장기	8(3.7%)	0(0%)	승마	0(0%)	4(3.8%)
하이킹	5(2.3%)	1(1.0%)	조깅	14(6.5%)	1(1.0%)
쇼핑	8(3.7%)	0(0%)	여행	28(13.2%)	13(12.4%)
박물관유적지견학	6(2.8%)	10(9.5%)	컴퓨터학원	2(0.9%)	2(1.9%)
탁구	4(1.9%)	0(0%)	농구	1(0.5%)	1(1.0%)
			기타	7(3.3%)	0(0%)
계	평소 : 214(100%), 미래 : 105(100%)				

이상의 결과는 '테니스', '배드민턴', '등산', '바둑·장기'의 순으로 나타난 이동렬[6]의 연구와는 대조를 보인다. 김지태[1]의 연구에서도 평소에 즐겨하는 여가활동으로 신체적 활동에 거의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그 중에서도 '테니스', '볼링', '조깅', '등산'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조사로 직장인들이 평소 여가활동으로 '여행', '연극·영화 관람'이나 집에서 'TV·라디오 시청'을 많이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들이 평상시에는 신체적인 활동보다는 사회적·지적·예술적인 활동으로 여가를 보내고 있음을 짐작케 하였다.

3.4.3 미래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

[표 5]에서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미래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골프'가 17.1%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여행'이 12.4%, '스킨스쿠버'와 '박물관 견학'이 각각 9.5%, '봉사활동'이 6.7%, '등산'이 5.7%, '윈드서핑'이 4.8%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동렬[6]에서 나타난 '테니스', '볼링', '등산', '수영'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상의 결과는 직장인들이 복잡한 사무나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활동을 다방면으로 여가를 즐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골프'인데, 예전에는 상류층의 여가활동이라 할 수 있던 것이, 현대에는 어느 정도는 대중화되었음을 알 수 있겠다. 모든 직장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도 예전에 비해 많이 높아짐에 따라 중류층의 직장인에게는 '골프'도 가끔씩은 여가활동으로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자리 매김 한 것이라 사료된다.

3.5 여가활동의 시간

[표 6]에서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평일 여가활동 시간은 '1시간~2시간미만'에 38.9%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다음은 '30분~1시간미만'이 33.3%, '30분미만'이 18.5%, '2시간~3시간미만'이 9.3% 순으로 나타났다. 토요일 여가활동 시간을 전체적으로 보면 '2시간~3시간미만'이 24.1%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일요일은 '4시간~5시간미만'이 27.9%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조사대상인 두 회사는 평일과 토요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요일에 시간이 많은 관계로 여가시간이 좀 더 많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여가활동 시간

시간 \ 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30분미만	10(18.5%)	-	-
30분~1시간미만	18(33.3%)	5(9.3%)	4(7.4%)
1시간~2시간미만	21(38.9%)	10(18.5%)	4(7.4%)
2시간~3시간미만	5(9.3%)	13(24.1%)	11(20.4%)
3시간~4시간미만	-	9(16.7%)	8(14.8%)
4시간~5시간미만	-	8(14.8%)	15(27.9%)
5시간~6시간미만	-	3(5.5%)	3(5.5%)
6시간~7시간미만	-	1(1.9%)	1(1.9%)
7시간~8시간미만	-	-	2(3.7%)
8시간~9시간미만	-	2(3.7%)	3(5.5%)
9시간 이상	-	3(5.5%)	3(5.5%)
계	54(100%)	54(100%)	54(100%)

3.6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6.1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의 5단계로 나누어 물어보았는데, 전체적으로는 '보통'에 51.9%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그 다음에 '불만족' 33.3%, '만족' 11.1%, '매우 불만족' 3.7%, '매우 만족' 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보통'에 63.2%로 가장 높게 응답했으며, 그 다음이 50대로 62.5%이다. 반면 30대는 '불만족'에 45.0%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20대는 '보통'에 42.8%로 가장 응답을 많이 하였다. 위의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20·30·40대의 직장인들 사이에는 '보통'과 '불만족'에 많은 응답을 보임으로써 자신들의 여가활동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은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50대의 직장인들은 '보통'과 '만족'에 높은 수치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여가생활에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적인 수치에서 '불만족'한 쪽 33.3%가 '만족'한 쪽 11.1%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법동[7]의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불만족'이 2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본 연구는 김법동의 연구보

다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김법동의 1980년대보다도 현대 직장인들에게 '일과 마찬가지로 여가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통'이 51.9%로 전체의 반을 넘어서고 있어, 김법동의 연구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 수치는 현대의 직장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여가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표 7. 여가활동 만족도

나 이 구 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계
매우 불만족	1(14.3%)	1(5.0%)	0(0%)	0(0%)	2(3.7%)
불만족	2(28.6%)	9(45.0%)	6(31.6%)	1(12.5%)	18(33.3%)
보통	3(42.8%)	8(40.0%)	12(63.2%)	5(62.5%)	28(51.9%)
만족	1(14.3%)	2(10.0%)	1(5.2%)	2(25.0%)	6(11.1%)
매우 만족	0(0%)	0(0%)	0(0%)	0(0%)	0(0%)
계	7(100%)	20(100%)	19(100%)	8(100%)	54(100%)

3.6.2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족 이유

불만족 이유에 대해서는 7개 항목을 부여하고 이 중에서 2개 이내에서 응답하게 했는데, [표 8]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시간이 부족해서'가 27.4%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으로 '돈(소득)이 부족해서'가 25.0%, '몸이 피곤하거나 의욕이 없어서' 14.3%, '시설이나 장소가 부족해서'가 13.1%, '교통이 불편해서'와 '참여할 수 있는 적당한 여가활동이 없어서'가 각각 7.1%로 나타났으며,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서'는 6.0%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시간과 돈(소득)'이 여가활동의 불만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다. 김법동[7]의 연구에서도 '시간이 부족해서'가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한근재[9]도 현대인의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로 가장 주된 것은 경제적 부담과 시간부족이라 하였다. 이는 본 연구조사와 일치됨을 보인다.

표 8.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구 분 \ 나 이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계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서	2(16.7%)	1(3.0%)	1(3.4%)	1(10.0%)	5(6.0%)
돈(소득)이 부족해서	2(16.7%)	9(27.3%)	9(31.0%)	1(10.0%)	21(25.0%)
시설이나 장소가 부족해서	1(8.3%)	6(18.2%)	3(10.4%)	1(10.0%)	11(13.1%)
몸이 피곤하거나 의욕이 없어서	2(16.7%)	4(12.1%)	4(13.8%)	2(20.0%)	12(14.3%)
시간이 부족해서	3(25.0%)	8(24.3%)	9(31.0%)	3(30.0%)	23(27.4%)
참여할 수 있는 적당한 여가활동이 없어서	1(8.3%)	1(3.0%)	3(10.4%)	1(10.0%)	6(7.1%)
교통이 불편해서	1(8.3%)	4(12.1%)	0(0%)	1(10.0%)	6(7.1%)
계	12(100%)	33(100%)	29(100%)	10(100%)	84(100%)

3.6.3 소득수준

노동구[8]는 오늘날의 여가가 대중화되고 있는 것은 소득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여가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매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단계에서는 활동의 대상이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식주로 기울어지나, 소득이 증가하여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은 여가 등 2차적인 소비로 이동하게 된다[2].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참여유형에 영향을 준다면, 소득수준은 여가활동의 참여율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된다.

표 9. 월평균 소득

구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계
100~150만원미만	6(85.7%)	2(10.0%)	1(5.5%)	-	9(17.0%)
150~200만원미만	1(14.3%)	7(35.0%)	-	1(12.5%)	9(17.0%)
200~250만원미만	-	4(20.0%)	3(16.7%)	1(12.5%)	8(15.1%)
250~300만원미만	-	5(25.0%)	5(27.8%)	2(25.0%)	12(22.6%)
300~350만원미만	-	2(10.0%)	2(11.1%)	-	4(7.5%)
350~400만원미만	-	-	3(16.7%)	-	3(5.7%)
400~450만원미만	-	-	4(22.2%)	1(12.5%)	5(9.4%)
450~500만원미만	-	-	-	3(37.5%)	3(5.7%)
계	7(100%)	20(100%)	18(100%)	8(100%)	53(100%)

[표 9]에서 보면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중 20대에서는 '100~150만원미만'이 85.7%로 가장 많고, 30대에서는 '150~200만원미만'이 35.0%로 가장 많다. 40대에서는 '250~300만원 미만'이 27.8%로 가장 많다. 50대에서는 대체적으로 소득이 고르지 못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50~300만원 미만'자와 '450~500만원 미만'자가 높은 비율을 보인다.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소득이 낮은 쪽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이 높은 곳까지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근속연수가 오래되고 경력이 많은 직원에게 소득이 높도록 되어 있는 연공서열제를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두 회사의 직원들 중 20대에서 '100~150만원미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아 이 두 회사는 연공서열제로 직원의 평균소득을 매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따라서 연령대가 높은 층에서 소득도 비교적 많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사 자료라 사료된다. 위의 자료에서 전체대상자 월평균 소득은 100~300만원 미만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곳의 비율은 71.7%이다.

3.6.4 여가에 사용된 비용

[표 10]은 여가활동비를 연령별·급여별로 월평균 여가 비용을 얼마나 사용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 봤을 때 20대는 '5~10만원미만'을 42.9%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30대는 '5~10만원미만'과 '10~15만원미만'을 각각 25.0%씩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40대는 '10~15만원미만'과 '15~20만원미만'을 각각 22.2%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50대는 '25~30만원미만'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급여별 월평균 여가비용을 보면, 100~150만원미만은 '5~10만원미만'을 55.6%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150~200만원미만은 '10~15만원미만'을 55.6%를, 200~250만원미만은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액수보다는 적은 비용에서부터 큰 액수까지 조금씩 분포가 나눠져서 나타났다. 250~300만원미만은 '20~25만원미만'이 33.3%를, 300만원 이상자들의 소득에서는 5만원이상에서 20만원 미만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다가 중간 비용이 없고, 큰 비용인 40만원이상으로 건너뛰는 불규칙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표 10 참조].

이 결과로 볼 때 다소 예외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소득

표 10. 여가에 사용된 비용(단위: 만원)

구분	여가비용	비용구분										계
		0~5미만	5~10미만	10~15미만	15~20미만	20~25미만	25~30미만	30~35미만	35~40미만	40~45미만	45이상	
연령별 월평균 여가 비용	20~29세	3(28.6%)	3(42.9%)	1(14.2%)	1(14.2%)	0(0%)	0(0%)	0(0%)	0(0%)	0(0%)	0(0%)	7(100%)
	30~39세	1(5.0%)	5(25.0%)	5(25.0%)	3(15.0%)	2(10.0%)	1(5.0%)	0(0%)	1(5.0%)	2(10.0%)	0(0%)	20(100%)
	40~49세	1(5.6%)	2(11.1%)	4(22.2%)	4(22.2%)	3(16.7%)	2(11.1%)	1(5.6%)	0(0%)	1(5.6%)	0(0%)	18(100%)
	50~59세	0(0%)	2(25.0%)	1(12.5%)	1(12.5%)	0(0%)	3(37.5%)	0(0%)	0(0%)	0(0%)	1(12.5%)	8(100%)
계		4(7.6%)	12(22.6%)	11(20.8%)	9(17.0%)	5(9.4%)	6(11.3%)	1(1.9%)	1(1.9%)	3(5.7%)	1(1.9%)	53(100%)
급여별 여가 비용	100~150미만	3(33.3%)	5(55.6%)	0(0%)	1(11.1%)	0(0%)	0(0%)	0(0%)	0(0%)	0(0%)	0(0%)	9(100%)
	150~200미만	0(0%)	2(22.2%)	5(55.6%)	1(11.1%)	0(0%)	1(11.1%)	0(0%)	0(0%)	0(0%)	0(0%)	9(100%)
	200~250미만	1(12.5%)	1(12.5%)	0(0%)	1(12.5%)	1(12.5%)	2(25.0%)	0(0%)	0(0%)	2(25.0%)	0(0%)	8(100%)
	250~300미만	0(0%)	1(8.3%)	2(16.7%)	3(25.0%)	4(33.3%)	1(8.3%)	0(0%)	1(8.3%)	0(0%)	0(0%)	12(100%)
	300~350미만	0(0%)	1(25.0%)	1(25.0%)	1(25.0%)	0(0%)	0(0%)	0(0%)	0(0%)	1(25.0%)	0(0%)	4(100%)
	350~400미만	0(0%)	1(33.3%)	1(33.3%)	0(0%)	0(0%)	0(0%)	1(33.3%)	0(0%)	0(0%)	0(0%)	3(100%)
400~450미만	0(0%)	1(20.0%)	2(40.0%)	1(20.0%)	0(0%)	0(0%)	0(0%)	0(0%)	0(0%)	1(20.0%)	5(100%)	
450~500미만	0(0%)	0(0%)	0(0%)	1(33.3%)	0(0%)	2(66.7%)	0(0%)	0(0%)	0(0%)	0(0%)	3(100%)	
계		4(7.6%)	12(22.6%)	11(20.8%)	9(17.0%)	5(9.4%)	6(11.3%)	1(1.9%)	1(1.9%)	3(5.7%)	1(1.9%)	53(100%)

이 낮거나 높거나 간에 여가비용은 '5~20만원미만'에 몰려서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위 연구조사에서 연구자는 월평균 소득이 높은 직장인이 반드시 여가비용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 결과를 내렸고, 이 내용을 정리하면, "직장인들의 급여별 여가비용 사용에 있어 월평균 소득과 여가비용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으며, 여가활동은 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욕과 본인의 업무형태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한편자[9]도 소득의 증가가 여가비용의 증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도 그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건설산업교육원의 교육생들인 건설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사례를 설문 조사하여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여가활동 필요성 등 17문항을 분석하였고, 조사대상자들의 전체적인 응답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여가에 대한 가치관으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에 29.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것은 현대의 가족관계가 핵가족의 보편화로 사랑과 평등이 전제가 된 부부위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예전의 확대가족과 비교하면 이동하기에 시간과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여가에 대한 가치관으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을 가장 많이 꼽은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여가활동 만족도에서 '만족'이 11.1%, '보통'이 51.9%로 보통 이상이 63%를 차지한 것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자 자신의 여가 기회를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나 상대적으로 '불만족'도 33.3%로 나타난 것은 건설공사 근무여건, 여가에 사용된 비용, 여가에 대한 의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회사의 여가정책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여가와 일에 대한 생각에서 '일도 중요하고 여가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에 85.2%의 절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하고 있고, 여가활동 만족도에 있어서도 '불만족'이 33.3%로 김법동[7]의 20.7%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을 보면, 직장인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더 여가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가는 그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다(77.8%)'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며, 응답률에서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넷째, 여가활동 만족도에서 '보통(51.9%)'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여가활동에 대한 계획에서 '대체로 세우는 편이다'에 75.9%의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예외는 있겠

지만 현대생활에서는 '여가활동'이 대중들에게 보편화되어 여가를 통해 즐거움을 누리고, 또한 여가가 대중의 의식 속에 뿌리를 내려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늠하게 한다.

다섯째,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로, '시간이 부족해서(27.4%)'와 '돈(소득)이 부족해서(25.0%)'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현대사회를 산업발달 이전과 비교해 보면, 현대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여가시간이 예전보다 늘어났고 소득 또한 많이 증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소득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돈(소득)이 부족'하다고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하였다. 이것을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자유로운 시간이 늘어나도 그것이 여가시간의 증대에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소득의 증대 또한 여가비용 증대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여섯째, 여가에 사용된 비용에서 월평균 300만원이상의 고소득자와 100만원, 200만원대의 소득자들이 사용하는 월평균 여가비용에 있어서도 약간의 예외는 있으나 '5만원에서 20만원미만'에 조밀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조사결과에서 직장인들의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 여가비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과 소득의 증가는 여가비용의 증가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한균자[9]와 비교해 보면, 그는 저서에서 "근로시간의 축소로 자유시간이 증대되어도 그것이 곧 여가시간의 증대를 의미하지 않으며, 소득의 증가가 여가비용의 증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론을 근거로 건설공사 기술자의 여가활동에 있어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우선, 여가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여가개념의 정립과 그에 기반을 둔 여가문화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본 조사에서도 현대의 건설공사 기술자들은 대부분이 시간에 쫓기고, 여가비용의 부족으로 소극적이고 경제적인 여가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여가활동을 통하여 근로의 재생산과 자기계발의 차원에서 여가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 민간단체 그리고 여가 관련업체들의 적절한 여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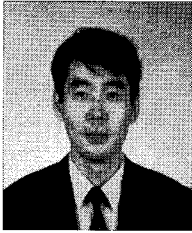
참고문헌

- [1] 김지태(1993), 직장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사학위논문

- [2] 우재경(2001), 노인의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최영완(2001), 한국 노인의 여가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영민(2000), 노인들의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임형균(2002), 노인의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이동렬(1993), 직장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법동(1987), 우리나라 도시거주 직장인의 여가생활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노용구(2001), 여가학. 도서출판 대경북스
- [9] 한균자의 14인 공저(2002),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박 흥 태(Hong-Tae Park)

[정회원]



- 1990년 2월 : 중앙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공학석사)
- 1995년 2월 : 중앙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공학박사)
- 1995년 6월 ~ 1997. 9월 : 대한주택공사 연구소 책임연구원
- 1997년 10월 ~ 현재 : 공주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건설공정관리, 건설시공기술, 건설공사관리

박 원 태(Weon-Tae Park)

[정회원]



- 1983년 2월 :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석사)
- 1993년 2월 :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박사)
- 1994년 10월 ~ 현재 :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관심분야>

구조공학, 강구조공학, 복합재료